

# 목판이 품은 아름다운 한글, 다시 생명을 얻다

전주완판본체 안내서

전주완판본체는 한컴오피스 NEO 프로그램 기본 서체에 탑재되어  
국민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랏말싸미 듕귀에 달아문 종와로서 르  
스 못디 아니 혼씨 이런 권 초로 어린 뵈성  
이니 르고 켜 흥배이 씨도 밋 춤내 제 쓰들  
시러 퍼더 몰 흥노미 하니라 내이 풀위 학  
야어 옛비 너겨 새 로스물 여들 짝 돌 밧그  
노니 사 롬 마다 항 씨 수 비니 겨 날로 뿌 매  
변한 리 학 고저 흥 썩 극 미 니라

전주완판본 각체로 입력한 훈민정음

- 발행 | 전주시
- 기획 제작 | 사회적기업 마당
- 개발 | 태시시스템

‘전주완판본체’는  
조선후기 전주에서 목판으로 간행된 책인  
‘완판본’의 아름다운 글꼴을 컴퓨터 서체로 만들어낸  
우리 시대의 서체입니다.

전주완판본체  
개요편

## 전주완판본체의 탄생

---

‘전주완판본체’는 조선후기 전주에서 목판으로 간행된 책인 ‘완판본’의 아름다운 글꼴을 컴퓨터 서체로 만들어낸 우리 시대의 서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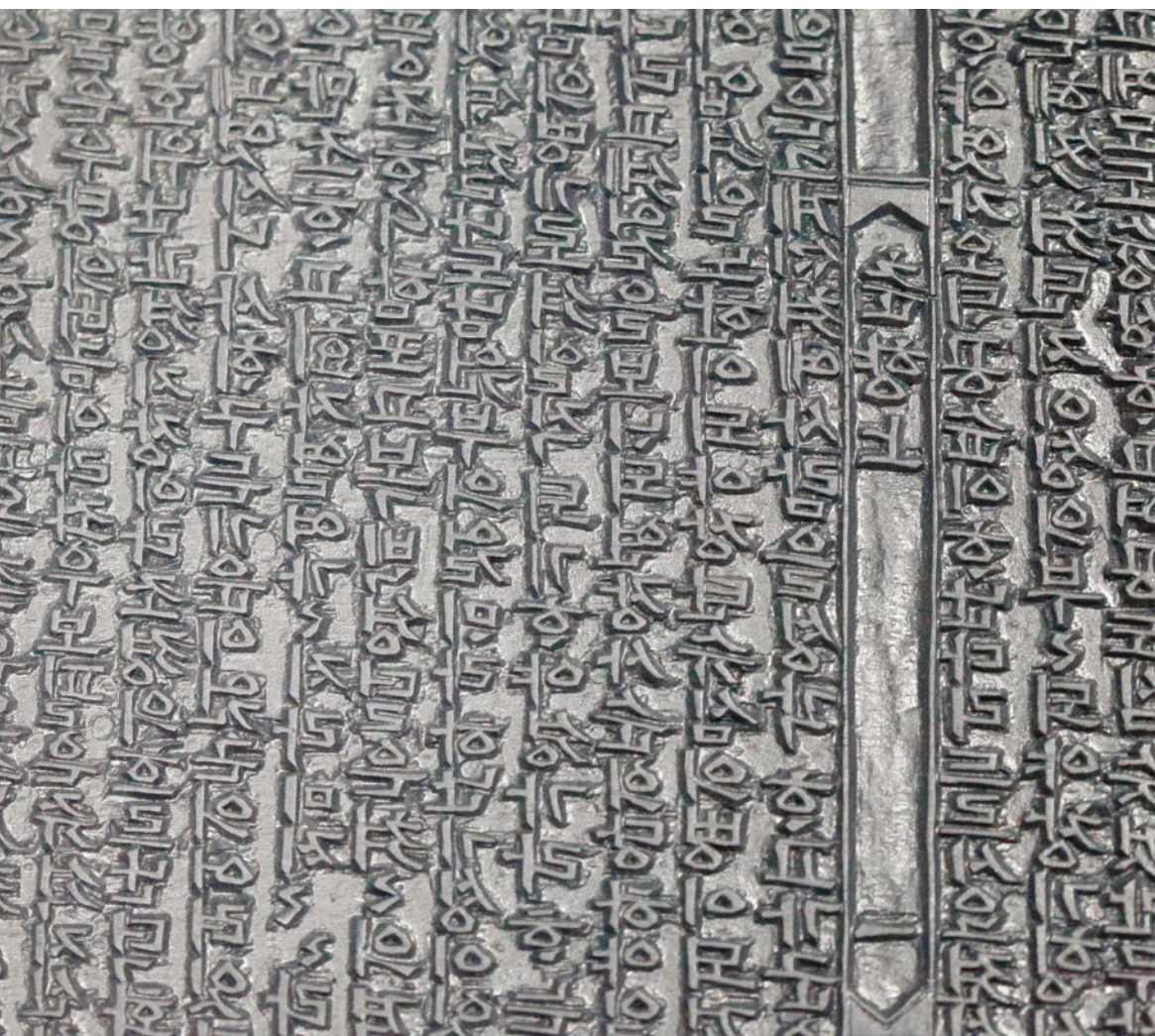
지난 2013년 사회적기업 마당은 전주의 뿌리 깊은 출판문화유산인 ‘완판본’의 가치를 살리고 목판본인 완판본에 새겨져 있는 아름다운 한글 글꼴을 널리 알리고자 서체 개발업체인 ‘태시시스템’과 손잡고 우리시대에 활용할 수 있는 서체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목판위에 새겨놓은 아름다운 한글을 순체와 각체 등 2종의 서체로 만들고 이를 다시 굵기를 달리하는 3종의 서체로 각각 세분화해 컴퓨터 서체로 만들어내는 작업이었습니다.

2014년 1월, 1년여 시간을 거쳐 순체와 각체, 그리고 굵기에 따라 그 아름다움을 달리하는 6종의 서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서체의 이름은 ‘완판본 마당체’라 붙였습니다.

전주시는 사회적기업이 유료로 보급해온 이 서체를 주목했습니다.

2016년, 전주시는 이 서체에 의미있는 작업을 더했습니다. 5,560자의 고어체를 컴퓨터 서체로 개발, 전주완판본체 글꼴을 완성한 것입니다. 여기에 ‘완판본 마당체’의 6개 서체에 대한 저작권을 사들여 모든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무료 보급에 나섰습니다.

2017년 4월, 누구나가 사용할 수 있는 ‘전주완판본체’는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 완판본(完板本)이란

‘완판본’은 조선시대 전주(完山)에서 발간한 옛 책과 그 판본인 목판본을 말합니다. 전주를 뜻하는 ‘완산(完山)’의 ‘완’자와 ‘목판(木板)’의 ‘판’에 책을 나타내는 ‘본(本)’을 붙여 만든 이름은 ‘전주에서 목판으로 간행한 책’이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전라감영에서 제작한 책의 목판본인 감영본과, 민간에서 제작된 목판본인 방각본을 모두 ‘완판본’이라 하지만 구분하자면 완판본 감영본(完營판)과 완판본 방각본으로 나뉩니다.

‘완판본’은 구체적으로는 ‘완영판(完營板)’이라 하여 전라감영에서 보급을 위해 제작한 판본과 판매를 목적으로 민간에서 제작한 ‘방각본(坊刻本)’을 아우릅니다. 오늘에 이르러 오래된 도시 전주의 소중한 가치 있는 문화유산이 된 목판‘완판본’은 모두 감영에서 제작한 ‘완영판’입니다.

전국 감영에서 제작된 판본 중에서도 전라감영 판본만큼 대량으로 남아 있는 예는 없습니다. 사료로서의 가치 뿐 아니라 문화유산으로서의 소중한 가치를 인정받아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당대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완판본은 전주가 조선 최고의 출판문화 도시였음을 증명하는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입니다.



## 전주완판본체의 의의

‘전주완판본체’는 목판인 완판본의 글자를 집자(集字)하여 만든 국내 유일의 족보 있는 서체입니다. 과거 목판 글꼴이 가진 아름다움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구현한 이 서체는 ‘완판본’이란 뚜렷한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자치단체가 개발한 서체가 여럿 있지만, 그 대부분이 글꼴 디자이너에 의한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디자인, 활용도 측면에 의미를 둔데 반해 ‘전주완판본체’는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낸 도시, 조선후기 출판문화를 선도했던 출판문화 거점 도시인 전주의 역사성을 담은 ‘완판본’을 낱낱이 분석하고 해체하여 새롭게 조합한 뿌리 깊은 서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어체의 경우 고전 문구의 인용 등에 과거의 멋을 그대로 간직한 완판본 글꼴이 사용되기를 바라는 분들의 뜻을 반영하고 완판본 글꼴이 가진 고전적 가치와 아름다움을 배가할 수 있는 서체로 개발되었습니다.

고어체 구현에 있어서 기존 서체가 명조, 고딕의 글꼴 형태로만 표시되는데 반해 전주완판본 고어체는 전주완판본체로 온전히 구현되는 최초의 글꼴로, 한글 고어체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 전주완판본체의 활용

아무리 의미가 깊고 잘 만들어진 글꼴이라 할지라도 널리 쓰이지 않으면 개발 의의와 존재가치가 사라집니다. 전주시는 전주완판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여왔고, 그 결과 (주)한글과 컴퓨터와 협약을 통해 '한컴오피스 NEO' 프로그램 기본서체로 탑재,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접하고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더불어 한글단체 등과 함께 전주완판본체의 사용, 보급 및 확산을 위한 공동 노력의 약속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주완판본체' 사용으로 한글 사랑과 나눔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전주완판본체의 가치를 나누기 위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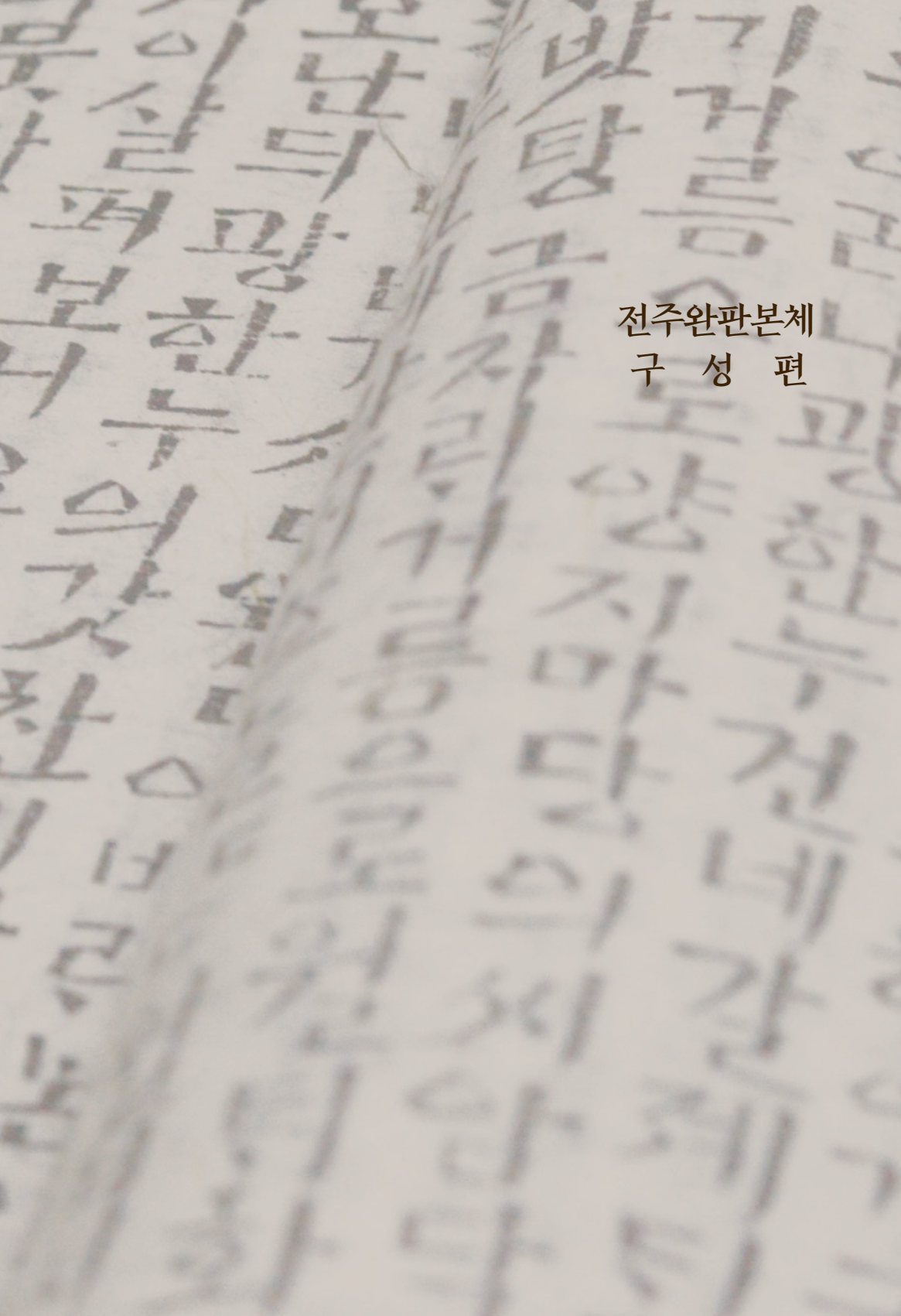
- 공공기관 사용 워드프로세서인 '한컴오피스 NEO' 프로그램 기본서체 탑재로 문서작성 및 작성문서 호환성을 강화했습니다.
- 전주시청 홈페이지에 전주완판본체 업로드, 무료 다운로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한글학회, 우리말 살리는 거래모임, 한글문화연대, 한글서체연구회, 한글문화단체모두모임 등 5개 한글단체와의 업무협약으로 전주완판본체의 사용, 보급 및 확산을 위한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

‘전주완판본체’는  
조선후기 전주에서 목판으로 간행된 책인  
‘완판본’의 아름다운 글꼴을 컴퓨터 서체로 만들어낸  
우리 시대의 서체입니다.

---

전주완판본체  
구 성 편



## 전주완판본체 글꼴 구성

	글꼴명	글꼴 구성 및 자수
Window용 TTF (True Type)	전주 완판본 각B 전주 완판본 순B  전주 완판본 각R 전주 완판본 순R  전주 완판본 각L 전주 완판본 순L	각 글꼴 현대한글 : 11,172자 고어한글 : 5,560여자 영문 및 기본 기호 : 94자 + KS용 기본 기호 : 1,000여자
Mac용 OTF (Open Type)	전주 완판본 각B 전주 완판본 순B  전주 완판본 각R 전주 완판본 순R  전주 완판본 각L 전주 완판본 순L	

## 전주완판본체의 특징

---

각체      완판본의 목판 느낌을 살린 글꼴

---

### 전주 완판본 각 Bold

완판본은 조선후기 전주에서 간행된 목판본입니다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

### 전주 완판본 각 Regular

완판본은 조선후기 전주에서 간행된 목판본입니다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

### 전주 완판본 각 Light

완판본은 조선후기 전주에서 간행된 목판본입니다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 전주완판본체의 특징

---

순체      완판본의 부드러운 획의 느낌을 강조한 글꼴

---

### 전주 완판본 순 Bold

완판본은 조선후기 전주에서 간행된 목판본입니다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

### 전주 완판본 순 Regular

완판본은 조선후기 전주에서 간행된 목판본입니다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

### 전주 완판본 순 Light

완판본은 조선후기 전주에서 간행된 목판본입니다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 전주완판본체의 특징

고어체 전주완판본체를 기본으로 완판본 글꼴이 가진 고전적 가치와 아름다움을 배가할 수 있는 고어 글꼴 제작

현재 국내에서 사용할 후 있는 고어 대부분이 명조, 고딕의 형태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황이고, 고전 문구의 인용 등에 과거의 멋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도록 제작

고어는 5,560자의 완성 자를 만들고, 고어에만 쓰이는 낱자도 별도로 제작

나랏말쌈미듬궤에달아문중와로서르  
스뭇디아니홀썩이런전초로어린빅성  
이니르고져흙배이셔도궤춤내제쁘들  
시러퍼디몬흙노미하나라내이룰위ᄃᆞ  
야어엿비너겨새로스물여들썩를밍ᄃ  
노니사름마다힘써수비니겨날로뿌메  
뻬한궤ᄃ고져흙썩르미니라

전주완판본체 각체로 입력한 훈민정음

---

‘전주완판본체’는  
조선후기 전주에서 목판으로 간행된 책인  
‘완판본’의 아름다운 글꼴을 컴퓨터 서체로 만들어낸  
우리 시대의 서체입니다.

---

전주완판본체  
설치편

## 전주완판본체 설치 안내

Window XP, Window Vista 이상

1. 전주완판본체 Window용 전주완판본체 폴더에 모든 폰트가 보입니다.  
폰트 파일의 이름은 해당 폰트의 이름과 동일합니다.

예) 전주완판본 각B(전주완판본 각B.ttf)

2. 더블클릭하여 [설치] 선택하면 설치가 진행됩니다.

Mac OS X

1. 글꼴 파일을 더블클릭하여 글꼴 보기 화면이 활성화되면 우측하단의 '서체 설치' 버튼을 누르시거나 글꼴을 Font 폴더에 복사해 넣으면 설치가 됩니다.

## 전주완판본체 고어 사용법

전주완판본체 고어

5,560자의 완성 자와 고어에만 쓰이는 날자도 별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한글 사용자

먼저 전주완판본체를 선택하고, [입력] 메뉴의 [문자표]를 선택하면 아래의 그림이 나옵니다. (단축키 : Ctrl+F10)





---

‘전주완판본체’는  
조선후기 전주에서 목판으로 간행된 책인  
‘완판본’의 아름다운 글꼴을 컴퓨터 서체로 만들어낸  
우리 시대의 서체입니다.

---

전주완판본체  
사 용 편

## 전주완판본체 글꼴별 권장 사용 용도

글꼴명	글꼴형태	권장 용도
전주 완판본 각 Bold	각체 제목	문화관광지 간판, 인쇄물용 제목, 커버 제목, 현수막 및 광고 타이틀, 디지털 홍보용(모바일, PT 등), 각종 패키지 제목, 웹사이트
전주 완판본 각 Regular	각체 본문	각종 문서 제목, 공공시설 안내판 및 Sign, 각종 홍보물과 책표지 인쇄물의 제목
전주 완판본 각 Light	각체 본문	각종 문서 본문, 간판 및 안내판의 본문, 각종 홍보물과 책표지 인쇄물의 본문, 명함 및 명찰 이름
전주 완판본 순 Bold	순체 제목	문화관광지 간판, 인쇄물용 제목, 커버 제목, 현수막 및 광고 타이틀, 디지털 홍보용(모바일, PT 등), 각종 패키지 제목, 웹사이트
전주 완판본 순 Regular	순체 본문	각종 문서 제목, 공공시설 안내판 및 Sign, 각종 홍보물과 책표지 인쇄물의 제목
전주 완판본 순 Light	순체 본문	각종 문서 본문, 간판 및 안내판의 본문, 각종 홍보물과 책표지 인쇄물의 본문, 명함 및 명찰 이름



## 전주완판본체 실 사용예

---

우리의 일상에 들어온 '전주완판본체'  
한글의 아름다움에 눈 뜨게 하다

## 옥외 홍보물



전주완판본체 순체

전주역 관광안내소 안내문

첫마중길  
Cheonmajung-gil

전주 첫마중길은 자동차보다는 사람의 도시, 콘크리트보다는 생태의 도시,  
직선보다는 곡선의 도시를 지향하는 전주시민의 길이자 전주의 첫인상을 심어주는 길입니다.  
길과 광장, 사람과 자연, 예술과 문화가 어우러지도록 시민들의 마음으로 닦은 길입니다.  
고사리촌 아이들의 돼지 저금통부터 먼저 떠난 아들을 기억하는 엄마의 마음까지  
수많은 시민들의 진심을 나무에 담았습니다.  
그 진심이 뿌리내리고 싹을 틔워 우거지는 곳,  
이곳은 "가장 인간적인 도시"로 가는 길, 전주 첫마중길입니다.

첫마중길  
Cheonmajung-gil

전주 첫마중길은 자동차보다는 사람의 도시, 콘크리트보다는 생태의 도시,  
직선보다는 곡선의 도시를 지향하는 전주시민의 길이자 전주의 첫인상을 심어주는 길입니다.  
길과 광장, 사람과 자연, 예술과 문화가 어우러지도록 시민들의 마음으로 닦은 길입니다.  
고사리촌 아이들의 돼지 저금통부터 먼저 떠난 아들을 기억하는 엄마의 마음까지  
수많은 시민들의 진심을 나무에 담았습니다.  
그 진심이 뿌리내리고 싹을 틔워 우거지는 곳,  
이곳은 "가장 인간적인 도시"로 가는 길, 전주 첫마중길입니다.

전주 첫마중길은 자동차보다는 사람의 도시, 콘크리트보다는 생태의 도시,  
직선보다는 곡선의 도시를 지향하는 전주시민의 길이자 전주의 첫인상을 심어주는 길입니다.  
길과 광장, 사람과 자연, 예술과 문화가 어우러지도록 시민들의 마음으로 닦은 길입니다.  
고사리촌 아이들의 돼지 저금통부터 먼저 떠난 아들을 기억하는 엄마의 마음까지  
수많은 시민들의 진심을 나무에 담았습니다.  
그 진심이 뿌리내리고 싹을 틔워 우거지는 곳,  
이곳은 "가장 인간적인 도시"로 가는 길, 전주 첫마중길입니다.

현  
수  
자  
명  
단

전주 첫마중길은 자동차보다는 사람의 도시, 콘크리트보다는 생태의 도시,  
직선보다는 곡선의 도시를 지향하는 전주시민의 길이자 전주의 첫인상을 심어주는 길입니다.  
길과 광장, 사람과 자연, 예술과 문화가 어우러지도록 시민들의 마음으로 닦은 길입니다.  
고사리촌 아이들의 돼지 저금통부터 먼저 떠난 아들을 기억하는 엄마의 마음까지  
수많은 시민들의 진심을 나무에 담았습니다.  
그 진심이 뿌리내리고 싹을 틔워 우거지는 곳,  
이곳은 "가장 인간적인 도시"로 가는 길, 전주 첫마중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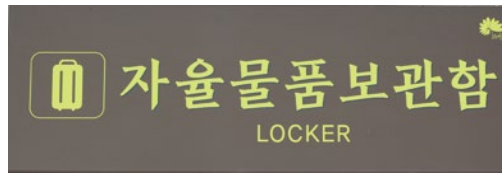
전주완판본체 순체

전주역 첫마중길을 소개한 사인물



전주완판본체 순체

전주 한옥마을 거리에 새로 정비한 쓰레기통 안내판



전주완판본체 순체

전주 한옥마을 자율물품보관함 안내판





전주완판본체 순체

전주 남천교 차량 통행금지 안내판

## 남천교 Namcheon Bridge

국내 유일의 교량건축물로서, 이 두각에 서면 순양산의 위용과 전주천의 관대한 흐름이 한눈에 들어온다. 시원한 바람을 쐬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에 마땅맞은 곳이다. 낮에는 전주0길 한복걸음이 그대로 시야에 비추니, 전주한옥마을의 랜드마크로 불리운다. 밤에는 남천교 야경이 전주천에 그대로 반영을 비추내어, 야간관광의 명소로 떠오른 핫플레이스이기도 하다.

옛날 이곳에 조선전기까지 있었던 원래의 다리는 다섯 개의 무지개 모양이라고 해서 '오홍교(五虹橋)' 또는 '암걸다리(巖鐵橋)', 각 창(窓)의 뒷부분에 화기를 두르기위해 용이 조각되어 있어 '오룡교(五龍橋)'라고 불리기도 했었다.



전주완판본체 순체

전주 남천교 설명 안내판





전주완판본체 순체

전주 한옥마을 물길 이용수칙 안내판



전주완판본체 각체

전주 팔복예술공장 입구 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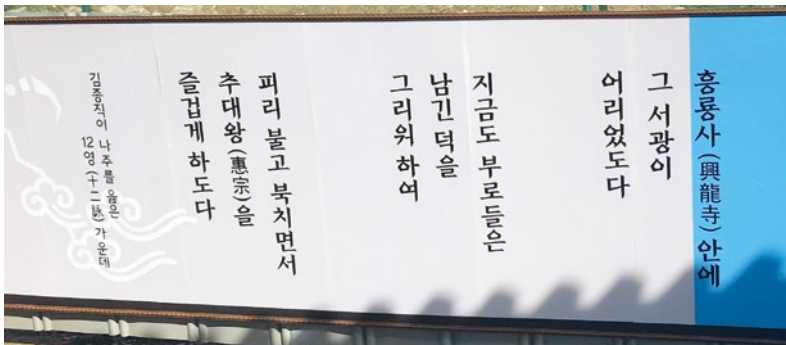
전주완판본체 각체

전주 팔복예술공장 입간판과 공간안내 걸개



전주완판본체 각체

2018년 5월 26일 남북정상회담을 기념한 걸개



전주완판본체 각체

전남 나주 객사 복원현장 공사장 가림판 걸개



전주완판본체 순체

전주시 공무수행 차량 스티커



전주완판본체 순체

제99회 전국체육대회 / 제3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알리는 걸개



전주완판본체 순체

제99회 전국체육대회 / 제3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알리는 걸개

## 옥외 간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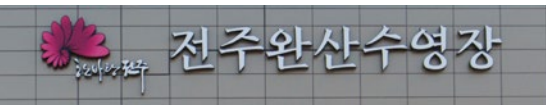
전주완판본체 순체

전주한옥마을역사관 간판 및 안내표지판



전주완판본체 순체

전주시청 외벽 전주시 슬로건



전주완관분체 순체

전주완산수영장 외벽 사인물과 길 안내표지판

## 한옥마을 메모리즈 Memories

**1394년, 한옥마을은 조선왕실의 텃자리**

1394: Jeonju's Hanok Village, the Birthplace of the Royal Families of the Joseon Dynasty

조선은 건국 후 현재의 한옥마을 중심부에 경자문을 세우고 태조 이성계의 어진상의 초상을 모셨다. 이후 전주사고, 조경교, 오죽대비, 이목대를 세워 조선왕실의 후궁로 성격화 하였다. 왕조의 성지였으므로 주변에 민가가 거의 없었다.

After the founding of the Joseon Dynasty, Gyeongjo-jeon was built in the center of the present-day Hanok Village and there enshrined the royal portrait of Taejo Lee Seonggye. Later, after adding the Jeonju History Archives, Jogyerangyo, Okjukdaebi, and Imokdae, Jeonju was sanctified as the seat of the royal families of the Joseon Dynasty. As it was the holy place of the dynasty, there were only a few privately owned houses around it.

**1905년, 일본인이 진출하다**

Appearance of Japanese People in 1905

일사박약 1905년 이후 일본인들이 대거 전주에 들어오면서 다가동 근처 전주 천변에 자리를 잡았다. 당시 전주부성 안에는 선분이 높은 사평동만 거주할 수 있었고 평민들은 성 밖에 거주했다. 1911년 성곽이 철거되면서 일본인들도 성 안으로 진출했다.

After the Protectorate Treaty in 1905, Japanese people came to Jeonju in large numbers and settled down near the Jeonju-cheon (Jeonju stream) around Daga-dong (Daga neighborhood). At that time, only high-class people could reside inside the walls of Jeonju, and ordinary people lived outside of the walls. When the walls were demo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wall demolition laws in 1907, Japanese people moved inside the walls of Jeonju as well.

전주완판본체 순체

전주한옥마을역사관 안 전시 패널



전주완판본체 순체  
전라북도청 로비 홍보 사인물

## 인쇄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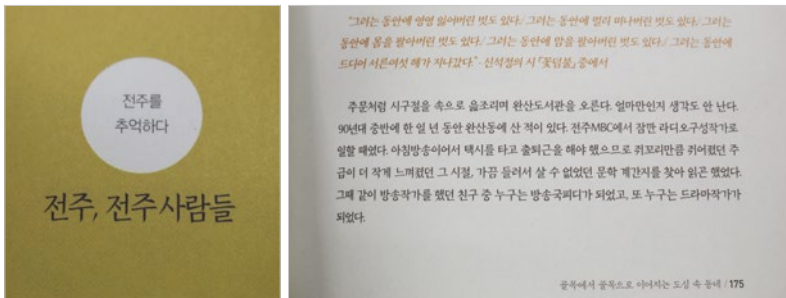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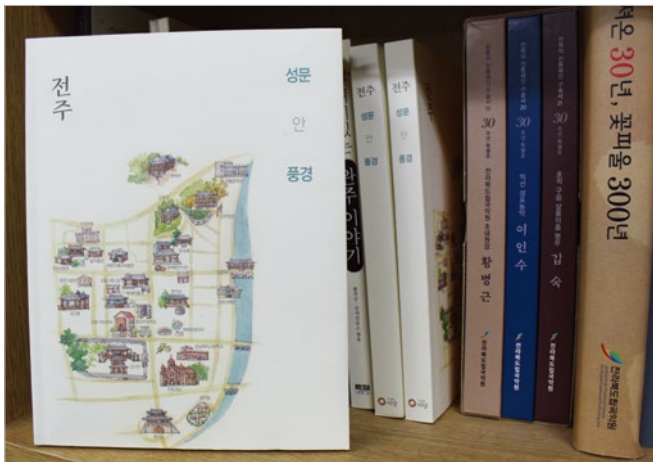


### 전주완판본체 순체

전주완판본체가 표지와 본문에 활용된 성경  
자료출처 : 전주대학교 호남기독교 박물관

-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묻다
- 19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 20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 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 21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 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 22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치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 23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 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 24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 베드로가 다시 제자가 아니라고 하다
- 25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 26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찢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 27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 빌라도 앞에 서시다
- 28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 자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 29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 30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 31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 32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

- 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 33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 34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나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나
- 35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 36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 37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 아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들으리라 하신대
- 38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나 하더라
- 심자가에 옷박도록 예수를 넘겨 주다
-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 39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 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 40 그들이 또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 19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 2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 3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 4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러라 하더라



전주완판본체 순체

전주완판본체가 표지와 본문에 활용된 책자 <전주 성문 안 풍경>





전북의  
빛깔



전주완판본체 순체

전주완판본체가 제호에 사용된  
전북소식지 <일쭉 전북>

전주완판본체 순체

전주완판본체가 제호에 사용된  
전북소식지 <전북의 빛깔>

## 포스터

“전주 경기전”  
 전주 목욕터 터널 비밀의 문이 열린다.  
 100명에게만 주어질 특별한 시그니처! 왕과 산책의 경기전 순찰하다

2018  
 2018. 5. 12. 9. 29

# 왕과 의 산 책

단뿔아래 펼쳐진 조선역사의 숨겨진 느낌을 느낄 수 있는 순간  
 2018 경기전 “왕과의 산책”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해설이 있는 경기전에서 만나는 음악과 차한잔의 여유를 통해  
 살아있는 전주의 모습을 만나 보시길 바랍니다.

**행사기간**  
 2018년 5월 12일~9월 29일 (총 17회)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 목요일 7월 21일 / 7월 28일 / 8월 4일 / 8월 11일 행사 없음 ]

**장소시간**  
 경기전 입구 안내소  
 20:00~21:40 (행사 시작 40분전부터 접수 시작)  
 준비물 : 예매자의 신분증과 예매번호를 필히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매 방법**

권 타 번호	참가비 : 1인 10,000원 [한인당 최대4명] 예매처 : 티켓옥션 : ( <a href="http://ticket.auction.co.kr/">http://ticket.auction.co.kr/</a> ) 참여인원 : 1명당 100명 (신청은 4명) * 1인당 100명 한도 * 1인당 4명 한도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불호 취급될 경우 사전지식을 해주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회 매	10,000원 이상 또는 용액인 대상 * 해당 10명 (1인 최대 4명) 지역번호 없이 1566-1369 운영시간 : 월~토 오전 9시~ 오후 6시

예매처 : 티켓옥션 : (<http://ticket.auction.co.kr/>)

전주완판본체 순체

전주 경기전에서 진행된 '왕과의 산책' 포스터



진주완판본체 순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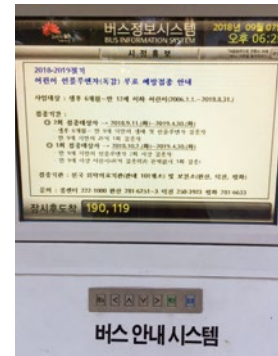
전주 경기전 승문장 교대의식 포스터

제99회 전국체육대회 · 제3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포스터 / 전북천하 포스터

## 디지털 홍보물



전주완판본체 순체  
전주역 안 디지털 홍보물



전주완판본체 순체

전주시 버스안내시스템 홍보물



전주완판본체 순체  
전라북도청 홈페이지



전주완판본체 순체

전주시 홍보영상(유튜브, 전주시 홈페이지)

'전주완판본체'가 만들어지기까지

# 잠들어 있던 글꼴이 다시 숨을 쉰다

김태정 태시시스템 대표



## 조화로운 글자 숲의 구현

새로운 글꼴을 개발할 때 항상 부딪히게 되는 문제가 '나무를 아름답게 꾸밀 것이냐?' 아니면 '숲을 조화롭게 할 것이냐?' 이다. 특색 있는 자소의 모양을 가진 새로운 글꼴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게 되고 이를 구현하다 보면, 처음 한두 글자의 디자인 도안부터 전체 글자의 디자인으로 발전하게 된다. 대개의 경우에는 한두 글자의 도안이 전체글자로 확장되는 단계에서 조화로운 '숲'을 위하여 초기에 구상된 디자인의 희생과 절제가 따르기 마련이다.

'캘리그래피'처럼 한두 글자 또는 짧은 문장 하나를 디자인하는 것과 최소 2,350글자(완성자의 경우) 또는 11,172글자(유니코드의 경우)의 조화를 만들어 가는 것은 제작 기획의 출발 단계부터 다르다.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져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시점이 올지는 모르겠으나, '아름다운'의 '름'은 '이름'의 '름'과 같아야 하고, '다름'의 '름'과도 같아야 한다. 단어 또는 문장의 시작 위치에 있을 때와 끝 위치에 있을 때, 또 어떤 글자와 앞뒤에 만나냐에 따라 손으로 쓰는 글자의 모양은 달라지게 된다. 단어 또는 문자의 어디에 속할지 모르는 글자 하나하나를 '만들기' 하는 것은 일필휘지로 멋을 낼 수 있는 또 다른 창작 영역인 '쓰기'와는 차원이 다르다. 영문 글꼴의 경우, ligature(합자) 기능을 통해 함께 나란히 사용되는 두 문자를 하나의 문자처럼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office'란 단어와 같은 경우 'ffi'를 하나의 글자로 만들어 단어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워낙 조합이 다양한 한글의 경우, 이러한 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쉬운 일 역시 아니다.

이 글은 이런 제작의 과정을 글꼴 전문가가 아닌 독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 쓰여졌다. 개략적으로나마 완판본체 제작의 전 과정을 함께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 제작의 원칙 : 하나의 자소보다 전체적 조화가 우선이다

처음 완판본을 접했을 때, 낱자의 형태가 서로 다른 상황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받쳐주는 조화가 있음을 느꼈다. 부조화를 있는 그대로 글꼴에 담을 수는 없으므로 처음 눈에 들어온 판본의 느낌 그대로를 글꼴에 실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목판본의 특징상 같은 글자라고 하더라도 사용된 글자의 위치와 작업자의 작업 특성에 따라 형태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어서, 하나하나의 글자 형태를 있는 그대로 살리는 것 보다는 전체적인 조화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두 번째로 완판본의 글꼴은 세로쓰기를 기반으로 제작되었고, 글자 하나하나를 새기며 공간배분을 했기 때문에 글자의 높이가 모두 다를 수 밖에 없었다. 세로쓰기 기반의 글꼴을 제작하게 될 경우, 가로쓰기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모양이 나오게 된다.그러나 컴퓨터에 이 글꼴이 탑재되어 일반인이 사용하는 폰트로서 가치를 가지려면, 원형의 구현과 동시에 현대적 글꼴 디자인의 요소를 가미하여 제작하여야 했다. 사용되지 않고 복원의 의미만을 가지는 글꼴은 생명력이 없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이유로 전체 글꼴의 형태를 '가로 사용'기반의 글꼴로 만들었고, 그 굵기는 본문에 적용할 수 있는 굵기로 정하였다.

세 번째로 완판본이 최초로 새겨진 매체는 목판이었고, 종이에 찍혀 보존되었지만, 현대를 사는 우리가 이 글꼴을 컴퓨터용으로 만들어낸 것처럼, 시대의 흐름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끊임없이 발전하는 완판본체의 기반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를 위해서는 기획자, 제작자뿐 아니라 이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개선 의지가 담겨야 할 것이고 다시 이것을 받아들여 진화하는 완판본체의 모습을 계속 만들어나갈 방법을 찾고자 했다.

## 제작의 과정 : 완판본의 조형미, 디지털로 되살리다

제작의 과정을 굳이 구분하자면

- 집자 및 디지털화 작업
- 자형의 수정 및 날 글자제작
- 완성형 한글 제작
- 조화되는 영문, 특수기호 제작
- 유니코드 한글 제작
- 고어 제작

과 같이 6단계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1번 '집자 및 디지털화 작업'과 2번 '자형의 수정 및 날 글자의 제작'이다. 단순히 기존 인쇄물을 있는 그대로 가져오려면 스캔과 외곽선 추출과 같은 자동화 과정으로 모든 공정이 끝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완판본의 특징과 현대적 디자인의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된다.

앞서서도 기술한 것처럼 글자의 조형이 하나의 글꼴로서 일관성을 가지기 위하여 목판으로 구성된 각 글자의 조형을 새롭게 정리하여야 했다.

열여춘향수절가

〈시안1〉

열여춘향수절가

〈시안2〉

초기에 그림과 같이 두 가지 시안을 놓고 많은 고민을 했다. 〈시안1〉이 완판본이 가지는 원안의 느낌을 가지고는 있으나 각진 획들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부드러운 획의 느낌을 갖는 〈시안2〉를 함께 구상해 보았다. 최종적으로는 〈시안1〉이 완판체의 목판 느낌을 잃지 않는 구성이라는 의견과 〈시안2〉의 부드러운 느낌 역시 활용도가 높을 것이란 의견을 모두 수렴해 〈시안1〉을 '완판본 마당 각체', 〈시안2〉를 '완판본 마당 순체'라는 이름으로 함께 출시하게 됐다.

글자 획의 농담을 조절하는 것 역시 원본의 형태를 따르기 힘든 부분이었다. 완판본 원본을 보면 가로획이 세로획에 비하여 크게 가늘고 그 시작의 형태가 삐침을 형성하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져 있다. 그러나 그러한 형태로 제작할 경우 글꼴 전체가 힘을 가지지 못할 수 있고, 작게 인쇄될 경우에는 가로 획의 상당 부분이 인쇄 중 상실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보여 전체적인 균형을 깰 수 있었다. 전체 자소 디자인 형태 중 원형을 그대로 살리지 못한 여러 요소

중에서도 이 부분이 특히 아쉬운 부분이다.

ㅅ, ㅈ, ㅊ, ㅎ, ㄱ 등의 자소에서 원본의 구성과 현대적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

이었다. 특히 'ㄱ'과 함께 쓰이는 'ㅅ, ㅈ, ㅊ'의 자소 구성과 'ㄱ, ㄱ'의 형태가

문제였다. 원본에서 해당 자소의 형태와 비교해 보면 당시의 'ㄱ, ㄱ'와

함께 사용되는 받침은 현대의 디자인에 비하여 상당히 작게 구성되어 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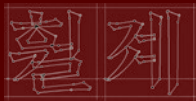
그 부분의 공간을 적절히 이용하여 'ㄱ, ㄱ, ㅅ' 등이 만들어 졌지만 이

를 현대적 느낌의 받침형태로 만들어 가면서 상대적으로 'ㄱ, ㄱ'의 크기

가 작게 디자인 되었다.

가로획과 세로획의 형태 차이도 약간의 차이를 두었다. 목각이 가지는 나무의 결 때문인지는 모르나 세로획이 힘있게 직선에 가까운 형태를 가졌다면 가로획은 직선에 가까우면서도 섬세하게 곡선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가로획의 경우 직선과 곡선이 적절하게 조화를 가지도록 미세한 곡선을 포함하여 제작하였다.

## 원성



# 함 포 회

'ㅎ'의 경우 그림과 같이 '함'의 'ㅎ'과 '회'의 'ㅎ'이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모두 '회'의 'ㅎ'형태로 통일하였다.

자소 디자인을 결정하고 난 이후 원형을 일부 버린 것에 대한 아쉬움이 컸다. 언젠가 폰트로서의 완판본 마당체가 아닌 원형 구성으로서의 글꼴을 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조금 덜 조화롭다 하여도 더 원형에 가까운 글꼴을 만들어 보고 싶은 소망이다.

날 글자 제작이 완성된 이후 글꼴 전체를 완성해 가는 과정은 다른 글꼴 제작 작업과 다르지 않았다. 단, 기존에 사용하던 글꼴 조합 테이블(CMAP)을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니 'ㄴ, ㄹ'와 만나는 'ㅅ, ㅈ, ㅊ'의 모양이 문제였다. 이는 별도의 조합 테이블을 만들어 수정하였다.

완판본의 목판 글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조형의 우수성이 날 글자의 적절한 조합만으로도 아름다운 글꼴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 각 글자의 무게 중심과 여백을 미세하게 조정하여 글꼴을 완성하였다.

**붕고파직하라 분부하나 본판은  
치고 속형이 불너 분부하되 네  
| 죄인을 솔이거늘 다 각각 문  
||집은 무어신다**

이러한 디자인 과정을 거쳐 시험인쇄를 한 이후 각 글자의 위치와 중심을 재차 수정하는 작업을 거쳐 '완판본 마당체'가 완성되었다. 기존 KSC 5601기반의 2,350자의 글자들은 완성형으로 제작되었고, 그 이외의 유니코드에 해당하는 글자들은 조합자를 제작하여 구현하였다.

## 고어 제작의 과정

1차 제작 및 출시를 마친 이후 완판본 글꼴이 가진 고전적 가치와 아름다움을 배가할 수 있는 고어 제작에 착수 하였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어 대부분이 명조, 고딕의 형태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황이고, 고전 문구의 인용 등에 과거의 멋을 그대로 간직한 완판본 글꼴이 사용되기를 바라는 분들의 뜻이 반영된 결과이다.

고어 제작은 완성형 글꼴을 만드는 것 보다 훨씬 더 고된 작업이었다. 우리가 고어라고 부르기는 하나 완판본 글꼴들이 근대에 제작된 것이어서 한글 고어의 흔적이 많이 보이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참조할 자료가 많지 않았다. 따라서 기존 고어 글꼴의 모양을 참조하고 기존 글꼴과의 균형을 맞추는 선에서 제작을 진행하였다.

완성형 한글이 2,350자 인 반면에 고어는 5,555자 정도의 완성자를 만들어야 했고, 고어에만 쓰이는 날자도 별도로 제작하였다.

각체와 순체를 굵기 별로 3종씩 제작하였으니 교차되는 글꼴을 제외하고도 20,000여자의 글꼴을 새로 제작하는 고난의 작업이었다. 그러나 완판본 글꼴이 가진 아름다움은 고어가 제작된 이후 더욱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한 보람은 제작의 고통을 상쇄하고도 남을 수 있었다.

정확한 고증과 사용상의 요구에 따른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는 하겠으나 고어 글꼴까지 포함된 완판본 글꼴은 최초로 기획된 완판본 글꼴 제작의 완성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300여 년  
목판 위에서 잠들어 있던  
아름다운 글꼴  
전주완판본체